23일 Market Index
코스피 4708.54 (-161.42)
코스닥 635.45 (-10.23)
금리(국고채 3년) 3.623 (-0.019)
환율(원·달러) 1345.9 (+9.7)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재계 인사 키워드 '안정'… 현대차그룹도 연속성 무게

삼성전자·SK그룹·LG그룹 등 핵심계열사 CEO 대부분 유임

현대차 호세 무뇨스 유임여부 6년 기아 이끈 송호성 거취 관심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최고경영자(CEO) 교체보다 기존 경영체제 유지에 무게를 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다 현대차의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현대차그룹 역시 조직 쇄신보다는 경영 안정과 사업 연속성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LG그룹은 최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핵심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시키며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갔다.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기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의 투톱 체제를 유지했다. 대신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에 각각 황상준 사장과 최원준 사장을 선임하며 사업부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그룹도 주요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한 가운데 실적 개선을 이끈 사업 책임자와 로보틱스,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 인재를 발탁했다.

SK그룹은 일부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면서도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유임하는 등 핵심 사업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했다. 에너지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인사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연말 인사 발표를 앞둔 현대차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전략과 인사 방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1~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 288만67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3분기에는 국내 공장 생산 차질과 파업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92만710대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11.3% 줄었다. 3분기 매출은 45조1102억원으로 3.4% 감소했지만, 우호적인 환율과 하이브리드차(HE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2조6772억원을 기록해 5.5%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코스피가 3.31% 내린 4708.54로 거래를 마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코스피 쇼크' 증안펀드로 겨우 막았다

코스피 3.31% 하락 4708.54 마감
중국·홍콩 보합권 대비 韓 낙폭 커
17만 전자·100닉스 무너지기 직전

코스피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우울한 월요일(Gloomy Monday)'을 맞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외에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 덕분이다. 다만, AI 관련주를 사기만 하면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31% 떨어진 4708.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증안펀드 등 정부 대책 기대감에 하락폭은 제한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싱가포르 STI지수 등 보합권을 오르내린 아시아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일본 증시는 휴장했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만 전자', '100만 닉스'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삼성전자는 3.06% 하락한 17만7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52% 하락한 108만5000원에 마쳤다.

이날 코스피 폭락의 원인은 미국 증시의 'AI 버블 쇼크'가 직접적이다. 엔비디아의 회계 부정 의혹과 최고경영자(CEO) 교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대중의 거센 반발, 앤트로픽 IPO 흥행 부진 등 여러 악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재발됐고, 미국 반도체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엔비디아 사태로 첨단 기술 산업이 규제 강화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국정원장 후보 강금실, 외교장관 임웅순

李 대통령, 통일 장관에 홍익표
행안 한준호, 문체 강유정 지명


강금실 국정원장 후보자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가정보원장과 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외교안보라인 수장 3명을 한 번에 바꾼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새 리더십으로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소위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는 '동맹파'를 대표해 온 통일·외교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노선 변화 논란을 피하고,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날 추가 개각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부실논란으로 사퇴한 최교진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은 지명되지 않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대통령 직속 기관장인 국정원장 후보자와 국무위원인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원장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금실 전 장관(현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1957년 제주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도 역임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에 박종복 낙점

회추위 12표 중 7표 '표심 집중'
26일 사원총회서 단독추천 의결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사진)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행장에게 표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열린 은행연합회 제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박 전 행장은 전체 12표 중 7표를 확보했다. 나머지 5표는 복수의 후보에게 분산됐다.

박 전 행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추가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박 전 행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사원총회에 제16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박 전 행장이 오랜 은행장 재임 기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주요 협회의 KB금융 출신 인사 쏠림에 대한 견제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 선임된 여신금융협회 이동철 회장과 화재보험협회 김기환 이사장이 KB 출신이다.

박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0년간 SC제일은행을 이끌었다. 이 기간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주요 은행장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까지 현직 은행장으로 활동한 만큼 현재 회추위원들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평가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28일 '청년미래콘서트' 참석…취업·창업준비 청년과 소통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입대 장병에게 "국가의 부름 응해줘 깊은 감사…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힘,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여론조사에 당심 50% 반영

▲김민석, '신천지 발언' 박선원에 구두 경고… "당 단합 해치는 언행 엄정 대응"

▲민주당 "조희대 탄핵, 늦어도 너무 늦어"…이르면 이번주 소추안 작성 완료

▲경찰, 김병기 수사 이달 마무리…한동훈 자녀 의혹 일부 공수처 이첩